

방직업계 구조조정 여파 광주에 '불똥'

경방, 광주 면사공장 시설 절반 내년까지 베트남 이전

전방, 임동공장 평동공장으로 통합 ... 인원 감축 예상

방직업계의 구조조정 여파가 광주에도 물아지고 있다. 전방(주)이 최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는데 이어 광주에 면사공장을 두고 있는 (주)경방이 시설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해 지역 경제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경방은 25일 "광주의 면사공장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섬유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있는 시설 절반가량을 내년 말까지 베트남으로 옮기는 일부 이전"이라

며 "현재 광주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55명 중 110명 정도는 광주에 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방은 현재 광주, 경기 용인, 경기 안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최신식 설비를 갖춘 광주 공장의 경우 면사를 생산하는 5만5000추(생산단위) 중 절반에 가까운 2만5000추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게 된다.

경방 측은 광주 공장에서 베트남으로 설비를 이전하는 비용은 약 200억원이지만 베트남의 인건비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 연간 임금 상승률도 7% 안팎이어서 충분히 이전비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근근이 버티오던 방직업계가 최근 들어 공장 폐쇄와 시설 해외 이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구조조정과 해외 이전 등으로 실질을 모색하기 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방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광주의 임동공장(종업원 수 200명)을 평동공장(200명)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인원 감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방 측은 평동공장의 자동화 증설 투자를 통해 전체 생산량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직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도 금마저 인상이 예상된다며 이중고를 호소

하고 있다. 방직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간 인건비가 올해(전방) 1370억원에서 1544억원으로 증가하면서 8개사가 약 270억원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방직협회 관계자는 "전방은 빨리 움직인 것이고 결국 시간의 문제"라며 "시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니 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방은 국내 섬유산업에 이근 1세대 기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옷감은 우리 손으로'라는 이념 아래 1919년 경성방직으로 출발했다.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매출 3774억원에 영업이익 434억원을 기록했지만, 임대·백화점 사업 덕분에 흑자를 냈을 뿐 섬유사업은 36억원 적자를 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중 관광객 거점 황해교류역사관 목표에 짓는다

97억 들여 용해동 문화단지

전남도 타당성 조사 보고회

중국인 관광객이 꼭 들러야 할 중국과의 인연을 담은 황해교류역사관이 목표에 건립된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정철실에서 중국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사업비 97억원을 들여 목포시 용해동 문화단지에 연면적 1400㎡ 3층 규모의 황해교류역사관 건립이 제시됐다.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수장고 등을 갖추고 콘텐츠는 한중 교류 역사·문화·인물·장소 등을 아우른다는 것이다. 전남 곳곳에 흩어져 있는 중국 관련 역사적 인물과 문화교류 관계를 집약해 전시하고, 정음성 생가터·황조별묘 등 중국과의 인연지 21곳을 안내해 대중국 관광객 방문 공간으로 활용

한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건축 규모, 전시물 배치,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체 디자인에 현대적 감각을 결집한 전통미를 가미하고 단순 유물 전시가 아닌 영상, 음향, 체험 등을 복합적으로 연출하기로 했다. 또 황해문화권의 지리와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전시 콘텐츠는 '해상로의 진출'이라는 도입부 영상실, 황해교류 역사·문화·인물·기관, 중국 인연 공간 등을 구분해 소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물 중심 스토리텔링에 그래픽을 결합한 가상현실(VR), 중국과 인연이 있는 전남 21곳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안내하는 키오스크(무인 안내기)도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청소년 대상 후보자 공모

광주시, 다음달 9일까지

광주시는 사회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제13회 광주시 청소년 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부문은 효행, 선행, 면학, 장애인, 예체능, 국제화, 봉사 등 7개다.

공모 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다.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관장, 학교장, 사회단체장, 청소년단체장의 추천으로 응모할 수 있다. 시상식은 9월 23일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 행사장(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05년부터 청소년 대상을 선정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대상 12명을 포함, 총 83명이 수상했다.

제1회 대상 수상자는 기부천사인 영화배우 문근영(당시 국제고등학교 3학년)이며 지난해 제12회 대상 수상자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간호, 학업 우수 등 효행의 본보기가 된 박찬면(현 빛고을고등학교) 군이 선정됐다. 문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062-613-2293 /오광록기자 kroh@



"강진청자 이렇게 만들어요"

25일 오전 강진 대구면 강진청자박물관 가마에서 도공이 관광객에게 청자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2013년부터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강진청자축제가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약방방간' 운영... 맞춤형 온도 서비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전동차 냉방 온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체온 맞춤형 냉방온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5일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전동차 2개 편성을 '전동차 약방방간'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약방방간은 해당 열차의 3번째 칸으로 지정됐으며, 기존 냉방 설정온도(섭씨 26도)보다 약 2도 정도 높은 온도로 운영한다. 1일 약 8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시민 반응을 살피기 위해

시간대는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칸에는 '약방방간'이라는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전동차내 LCD자막을 통해서도 공지하고 있다.

공사는 우선 2주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시민들의 반응을 분석해 지속적인 정식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호 사장은 "승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약방방간을 시범운영하게 됐다"면서 "시민 모두가 시원하고 편안하게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3차 공모서도 사장 적격자 못찾은 광주도시공사

연말·내년초 공모 가능성

시, 상임이사 선정에 주력

광주도시공사 3차례 공모에도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일단 접고 상임이사 선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중효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25일 기

자간담회를 하고 "사장 직무대행인 상임이사(경영본부장)의 임기(9월 22일)가 다가오는 만큼 서둘러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상임이사를 뽑은 뒤 후임 사장의 공모 시기,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 등 2명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

접 등을 거쳐 선발한다. 사장은 달리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지만, 공고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장 후보로 추천된 2명의 후보는 전임지에서의 활동 논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월과 3월, 사장을 찾기 위해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일부 임원이 '셀프 추천'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면서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이번 3차 공모에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사장 인선은 연말이나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광주시는 올 상반기 11개 공공기관 임명을 추진하면서 도시철도공사, 여성재단 등 9개 기관장 임명을 완료했으며, 문화재단은 8월중 임명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유명 횡집도 못 민겠네

중국산 산낙지 국산 둔갑 판매

전남도 횡집·음식점 5곳 적발

값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유명 음식점 5곳이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 고급 횡집과 낙지전문점 5곳을 적발해 업주들을 입건했다.

적발된 음식점은 순천 2곳, 여수 1곳, 광양 1곳, 나주 1곳이다. 특히 2곳은 기초단체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음식점들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산 낙지를 마리당 3000~4500원에 사들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산 낙지가 마리당 9000~1만 1000원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가 낙지자원 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6월 21일~7월 20일)로 공급량이 부족하자 수입산을 속여 판 것으로 특별사법경찰은 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주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7년 필리핀 주니어 체험 영어 캠프

모집 안내

- 캠프기간: 2017년 7월 30일(일) ~ 8월 26일(토)
- 모집연령: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 캠프장소: 마닐라 일라방 리조트 전용 동

● 24시간 상주 현지 담임 선생님
● 맞춤형 멘토맨 수업, 생활 영어 체험, 현장 영어 공부
●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영어 캠프 선생님
●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상담 문의 ☎ 070.8286.8726
epoweredu
블로그 : http://blog.daum.net/e.power

여름 캠프 등록이 마감 되었습니다. 접수가 마감됨을 알려 드리며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겨울 방학 영어 캠프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